

# 인문학이 서야 나라가 선다

김 영 민

한일신학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우 리 인문학의 현실을 떠올려보는 한, 죄송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은 잘못 정신나간 나라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불경스러운 이 진단은, 국가로서는 불행하겠지만 나로서는 다행하게도 혼잣생각이 아니다. 최소한 내가 가까이 사귀는 지기(知己) 여섯 명은 이 진단에 속깊이 공감하고 있다.

공감만 한다고 뭐하겠는가라고 분기탱천, 마침내 우리들은 의기투합하여 '한국 인문학 연구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그마한 모임까지 결성한 후 우리 인문학의 지리멸렬한 꼴을 어떻게든 봉합해보려고 미력을 바치는 중이다. 구성원들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인문학 교수들이라, 인문학에 관한 한 '잘못 정신나간'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을 걱정하거나 성토했 때 마다 자연스럽게 대학 강의실을 현장으로 삼

은 고민이 대화의 주종을 이루게 된다.

강단에서 바라보는 인문학의 현실은 한마디로 황폐하다. 인문학의 여러 과정을 담당하는 현직 강사들은 교실 안팎의 분위기가 학기가 흐를수록 차츰 우울해지는 기색이 완연하다고 하고, 그들의 현장감에 비친 여러 형국도 전반적인 하향세가 뚜렷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문학 교수가 지금받은 평균 연구비는 공학 교수의 1/24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눈에 띈다. 그러나 퇴락하는, 그리고 폄시당하는 부분이 어디 돈 문제에 국한되랴. 인문학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선다는 명제는 대학의 이념이나 원칙 이전에 역사의 교훈이었다. 전통적으로 인문학부는 대체로 '대학본관'이라고 이름 붙은 건물에 입주해 있고, 이런 배치에는 나름의 깊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제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미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건물의 곳곳에는 악취가 진동할 따름이다.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장미라고 불리는 저 꽃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든 그 향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잘 아는 대로, 로미오가 줄리엣을 처음 보고 고백한 사랑의 찬사다. 그러나 인문학에 관한 한 우리의 줄리엣은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초석이었던 효자 자연과학도 아니고, 민주화의 첨병이었던 적자 사회과학도 아닌 인문학. 그 인문학은 말만 많고 별이는 시원찮은 서자에 지나지 않는가? 대학마다 인문학 과정은 전에 없이 결락과 폐강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맹랑하게도 이와 반비례해서 전산이나 외국어 교육에는 제대로 교과편성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학생들이 몰린다고 한다.

“G대는 올해 취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편, 1~4학년이 모두 전산 강의를 받도록 하고 토익 6백점 이상 취득한 3, 4학년생은 영어 학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학가에 불고 있는 ‘개성화’ 바람의 한 단면이다.” 교육 개혁이 있는 후 1년간을 진단하는 J 일간지(1996년 6월 4일)의 기사 한 토막을 옮긴 것이다.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미는 발상이며, 진단이다. 대학의 근본이념인 다양성과 깊이를 묵살한 채 기술 학원이나 외국어학원 일양(一樣)으로 전락시켜가는 모습을 두고 개성화라니 오직 유구불언일 뿐이다.

대학교육이 유용성에 관심을 두는 것을 그것 자체로 타박할 심사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유용성에도 대학교육이 뜻을 두어야 마땅할 유(類)와 격(格)이 있는 법이다. 눈 앞의 유용성에 코를 찌 채, 대학의 이념과 인문학적 가치를 도외시하면서 대학생을 실무교육 위주의 기술생으로 취급하려는 태도는 불행한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한, 동·서양의 과학사로 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사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대략 14세기까지 앞서가던 동양의 과학이 서양에 뒤처지게 된 원인으로 바로 이 유용성의 뜻을 거론하기도 한다. 통상 뉴턴의 물리학을 일러 ‘원리의 물리학’(physics of principle)이라고 하듯이, 서양 근대과학이 보여준 눈부신 성취의 이면에는 실생활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유용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과학적 원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근대화의 주된 한 측면은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에 골몰한 과정에 다름아니었다. 나는 이 ‘곧바로 써먹자’ 주의(主義)야말로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있는 망국병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이 병인(病因)은 마치 기동성이 뛰어난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하룻밤이면 전국에 노래방을 짝 깔 수 있는 눈부신 순발력에서부터 인문학적 감성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폄하하는 풍

조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편재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세태와 풍조의 거름종이가 되어야 할 대학마저도 온갖 미명 아래 이 '곧바로 써먹자' 주의의 덫에 걸려들어 오히려 이 불행한 세태에 편승하거나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인문학의 부실은 이제 재생불량성처럼 느껴질 정도다. 교육의 선진화나 세계화라는 이념이 곧 실질적인 반(反)인문주의로 드러나는 우리 땅의 몰상식을 두고 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

이 우울한 사태에 혁신적인 대안은 없어 보인다. 권력에게는 귀찮은 인문학, 금력에게는 돈 안 되는 인문학일 뿐인 우리 현실 속에서 상쾌한 대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이런 꼴이 계속되면 인문학은 곧두박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고(?)하지만, 인문학이 곧두박질치는 것을 내내 방관만 한다면 언젠가 나라 전체도 곧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미봉적·단편적으로 미끼 던지듯 내뱉는 정책 따위는 다 그만두자. 다만, 강의와 집필을 주된 삶의 형식으로 택하고 있는 우리 인문학자들로서는 결국 어려우나 강단에서부터 수선(修繕)과 봉합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자. 우선 강의자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차적인 일, 즉 수업의 방식과 형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자. 인문학의 현실을 걱정하는 우리들이 교실 내에

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노력은 무엇일까.

첫째, 교실 안팎의 지형이 너무나 심한 대조를 보인다는 사실에 우리 강의자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강의도 이 사실에 민감하게 조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이 지닌 특징이면서, 동시에 인문학과 우리 삶의 현실을 서로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실제적 전략이기도 하다.

강의실 바깥의 삶은, 우리들이 교실 속의 검은 칠판과 하얀 책 앞에서 가볍게 기대하거나 짐작하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더 복잡하다. 긴 말이 필요 없이, 우리 삶의 구체적 현실은 언제나 일양과 일률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성과 중층성, 모호성과 다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인간들이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삶의 구체성과 복잡성은 교실 속의 단순성과 추상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질적 차이와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삶의 진면목은 실로 이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성을 그 근본 지형으로 삼으려는 교실 속의 삶의 게임은 자꾸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져간다. 교실 내의 의도적인 단순성과 강제된 명료성은 교실 바깥의 삶을 왜곡하거나 호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동떨어진 삶의 테크닉에 경도하게 만든다. 앞서 지적한 대로, 현실적 유용성만을 추구하는 풍조는 '깊이'를 없애고, 결국

‘깊이의 학문’인 인문학을 죽이게 된다. 그러나 현실을 아예 외면하는 태도는, 삶의 현실을 그 권리원천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인문학의 존립근거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전락한다. 맹목적인 경제지상주의, 상업화된 과학주의, 그리고 부박한 문화주의 속에 부대끼는 우리 인문학의 강요자들은 삶이라는 인문학의 존립근거를 늘 분명히 해줌으로써 인문학의 보양(保養)에 적극 나서야 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삶의 단순성에 물든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복잡성에 제대로 응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철 지난 상품을 세일즈하려는 상략이 아니요, 인문학의 권리원천에 충실하지는 원칙일 뿐이다.

둘째, 교실 내에서부터 인문학의 복권을 노리려면 우리 강요자들부터 대화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인문학의 전문성을 따지는 학인들이 방법의 면에서 보편적으로 합의하는 결집점은 결국 대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화는 인문학의 자가 발전을 위한 고유한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단순한 외장(外粧)이 아니라 인문학만의 고유한 깊이가 자생시킨 논의와 탐구의 패턴이다.

삶의 현실은 온갖 잡다한 형태의 대화로 이루어지지만, 인문학이 죽어가는 이 땅의 교실에서는 주입과 단답의 교류가 횡행한다. 대화의 부재는 얕이 삶과 소통하지 못하고, 창의가 편벽으로 흐르고, 정보가 닳 없는 부표(浮漂)로 부랑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개인의 창의와 개성이

강처럼 흘러야 할 인문학의 교실 내에서 이미 대화는 질시받고 소통불능의 지시와 명령이 직관인 양, 통찰인 양, 영감인 양, 그리고 제시인 양 맹목의 권위를 얻는다. 물론 창의와 개성은 분야마다 그 표현방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오직 대화의 긴장 속에서야 그 건강한 실질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법이다. 삶의 모습이 대화라는 사실—인문학의 교실이 대화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보다 탄탄한 논거가 있는가.

셋째, 인문학의 주체성과 자생성에 대한 감각을 길러야 한다. 뒤집어 표현하면, 삶의 식민성에 대한 자각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성도 역사와 터의 기운으로부터 면제된 곳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교실 내에서 복잡성의 정신과 대화의 방식으로 기껏 빚어내는 창의성마저도 어찌면 주체성도 자생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된 상품의 한 편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보장할 수 없다.

때늦은 ‘순수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를 부추기는 말이 아니다. 우리 학문의 수입상적 성격과 서구 추수적 자세는 이제 꽤 널리 비판되고 있다. 나 자신도 논문쓰기의 심리학과 정치학을 비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근대 서구의 과학주의적 글쓰기에서 벗어나 우리 땅의 현실과 역사에 알맞은 글쓰기 방식을 모색, 제안해본 적이 있지만, 문제는 얕의 방식 혹은 창의성의 표현방식에서 우리만의 자생력과 주체성의 역량이 없다는 점이

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고도의 기법과 테크닉으로 자주 빠지고, 다른 쪽에서는 즉발적인 실용성에 안달하는 선정주의가 판치게 되는 것이다. 인문학은 자신이 밝고 선 터와 이고 선 역사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자생성과 주체성이 실종된 인문학이란 야예 그 이름이 부끄러울 뿐이다.

인문학이 서야 나라가 선다. 나라의 깊이는 결국 사람의 깊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의 깊이를 도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

김영민/부산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 드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 강사, 감리교신학대 교수를 지내고 현재 한일신학대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인문학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오늘의 문예비평』, 『시와 사상』, 『건축비평』 등에 논문을 연재하고, 『부산일보』의 '문학 속의 철학' 칼럼을 부산대 이왕주 교수와 함께 집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서양철학사의 구조와 과학』, 『철학과 상상력』, 『시간과 현상학』 등이 있고, "가벼움에 대해서 : 얇·느낌·기법·해석"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부터 본 칼럼명을 '교수담론'에서 '대학담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교수담론'의 필자가 교수로 한정되는 단점을 극복하고, 행정직원·학생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필자로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는 지면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대학담론은 모든 대학인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이 곳을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